

# 北宋 詞風의 變化

林 承 垓  
(圓光大 中文科 專任講師)

## 〈 目 次 〉

I. 序 言	三. 傳統觀念의 打破
II. 北宋 詞風의 變化	四. 形式·格律의 重視
一. 晚唐·五代 詞風의 踏襲	III. 結 言
二. 教坊新曲의 流行	〈 參考文獻 〉

## I. 序 言

詞는 宋代에 이르러 君主들의 각별한 관심과 詞家들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으로 中國文學史上 부동의 重要的 文學的 地位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兩宋 3백 餘 年間 최대의 文學的 成就라 할 수 있다. 이 3백 여 년 동안에 南唐·五代에 建立된 詞風은 時代나 環境의 영향을 받아 前後 몇 차례 크고 작은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北宋 初期 晏殊·歐陽修 등이 晚唐·五代之의 詞風을 계승한 이후, 柳永에 이르러 「變舊聲作新聲」<sup>1)</sup> 하고 通俗卑近한 점이 첫번째 변화이고, 이어서 蘇軾의 「以詩爲詞」(詞體의 變化)<sup>2)</sup>가 두번째 변화이며, 周邦彥에 이르러 形式·格律의 重視가 세번째 변화이다. 그 이후 南宋에 이르러 辛棄疾과 姜기에 의한 두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나, 본 고에서는 북송 사풍의 변화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 II. 北宋 詞風의 變化

- 1) 李易安 語, 詞苑華編 卷九, 載唐圭璋, 詞話叢編, p.1859, 廣文書局.
- 2) 見 陳師道, 后山居士詩話, p.7, 筆記小說大觀, 第九編 六冊, p.3671, 新興書局.

## 一. 晚唐·五代 詞風의 踏襲

宋代 건국 초기, 四五十年間의 休養生息後에 사회 경제는 날로 번영하여 국민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때 출현한 일단의 인물들, 즉 寇準·韓琦·晏殊·宋祁·范仲淹·歐陽修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계고관의 신분으로 詞壇에 발을 들여 놓아 당시 詞壇에 활발한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들의 작품은 대부분 溫和하고 점잖아 귀티가 나며, 婉麗精美하고 纖細精巧하여 전혀 卑俗한 면이 없어, 상류사회의 생활상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은 여전히 짙은 「樂府小詞」를 고집하고, 內容에 있어서도 단조롭고 빈약하여 태반이 兒女의 感興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晚唐·五代之 詞風을 踏襲했다고 말할 수 있다.

宋初 詞壇의 영수 晏殊와 歐陽修의 몇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晏殊의 의 작품을 예로 들면:

## 踏 莎 行

작은 길가에 꽃은 드물고,  
교외에는 녹음이 가득,  
고대는 저 멀리 녹음 사이로 은은히 보이네.  
봄바람이 버들꽃을 가만 두려 하지 않으니,  
버들꽃 뿌연게 날려 행인의 얼굴을 치누나.

小徑紅稀,  
芳郊綠遍,  
高臺樹色陰陰見。  
春風不解禁楊花,  
濛濛亂撲行人。

푸른 버들잎 속에 피고리 숨어 있고,  
붉은 발 사이로 제비 나는데,  
향룻불 연기 아련히 거미줄가로 피어 오르네.  
근심 잊으려 술취해 든 잠 깨어보니,  
석양빛만 외로이 깊은 정원을 비추네.

翠葉藏鶯,  
朱簾隔燕,  
爐香靜逐遊絲轉。  
一場愁夢酒醒時,  
斜陽却照深深院。

## 清 平 樂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네.  
녹주 몇 잔에 취기가 돌아,  
창가에 베개 베고 깊은 잠에 빠졌네.

金風細細,  
葉葉梧桐墜。  
綠酒初嘗人易醉,  
一枕小窗濃睡。

자주빛 장미, 붉은 무궁화 모두 시들고,

紫薇朱槿花殘,

석양빛만 여전히 난간을 비추네.  
제비 쌍쌍이 남으로 떠나니,  
은사 병풍 속엔 어젯밤 한기가 느껴지네.

斜陽却照欄干。  
雙燕却歸時節，  
銀屏昨夜微寒。

晏殊는 득의만만한 고관으로, 평상시 집으로 손님 초대하기를 즐겨 연회를 거르는 날이 거의 없었다.<sup>3)</sup> 따라서 詩와 酒는 그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연히 그의 많은 小詞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小詞들은 그의 만족한 생활 속에서 春花·秋月의 閑愁를 찾아 읊어 화려하고 부귀한 맛이 있으나, 어떠한 진실된 사상이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에 인용한 〈踏莎行〉은 暮春初夏 해질 무렵의 春愁를 읊은 小詞이다. 小徑의 殘紅·郊野의 綠草·道上的 楊花·靜室의 爐香과 深院의 殘陽 등의 표현은 由遠而近과 由外而內의 방법으로 늦은 봄의 寂寞한 경치를 묘사했는데, 閑雅한 境界를 맛보게 하며 婉麗·清新하기 이를 데 없다.

두번째 〈清平樂〉詞은 가을날의 처량한 감회를 읊은 작품인데, 스산한 가을 경치를 읊은 다음 「醉酒」와 「濃睡」를 빌어 內心の 적막한 감회를 표출해냈다. 꿈 속에서 깨어 본 황혼의 정경과 거기서 생겨난 쓸쓸한 感懷는 사람들로 하여금 閑靜하고 柔美的 詩意의 느낌을 준다.

이제 歐陽修의 作品을 예를 들면:

### 采 桑 子

꽃철이 지나니 서호의 풍경이 더욱 좋구나.  
낙화는 어지러이 널려 있고,  
버들꽃은 안개같이 자욱이 흩날리고,  
버들가지 난간에서 바람에 종일 한들 거리네.  
노래가락 끝나고 유인들 떠나가니,  
봄날의 공허함을 문득 느끼네.  
창의 발 내려보니,  
한 쌍의 제비 새우 속을 날으네.

群芳過後西湖好。  
狼藉殘紅，  
飛絮濛濛，  
垂柳欄干盡日風。  
散後遊人去，  
始覺春空。  
垂不簾櫳，  
雙燕歸來細雨中。

### 蝶 戀 花

3) 葉夢得, 避暑錄話 云: 「喜賓客, 未嘗一日不燕飲」, 載筆記小說大觀 第三篇 冊三, p. 1601, 新興書局.

정원이 고요하기가 그 어느 정도인가? 수양버들 안개 속에 은은 히 보이네. 마치도 염막이 겹겹이 쳐진 듯. 호화롭게 단장한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누대만이 높을 뿐, 당대의 장대로는 찾을 길 없네.	庭院深深深幾許? 楊柳堆煙, 簾幕無數. 玉勒雕鞍遊冶處, 樓高不見章臺路.
--	--

비바람 몰아치는 삼월의 저녁녘에, 문 걸어 닫고 황혼을 막아보려 하나, 가는 봄 잡을 수 없네. 눈물 머금은 눈으로 꽃을 보고 물어봐도, 꽃들은 대답도 없이 그네 위로 어지러이 날으네.	雨橫風狂三月暮, 門掩黃昏, 無計留春住. 淚眼問花花不語, 亂紅飛過鞦韆去.
---	---

歐陽修的 詞는 晏殊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사대부의 閑靜爲主의 溫柔하고 深婉한 詞가 대부분이다. 위에 인용한 〈采桑子〉詞는 꽃철이 지난 西湖의 늦은 봄 경치를 읊었는데, 「殘紅」·「飛絮」·「風柳」·「細雨」·「歸燕」등이 조화를 이룬 봄 하늘 경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清新하고 柔美的 감상을 느끼게 해준다.

두번째 인용한 〈蝶戀花〉詞는 惜春의 情을 표현한 작품인데, 늦은 봄의 고요함 속에서 생겨나는 쓸쓸하고 공허한 감회를 그려냈다.

以上 列示한 작품들을 통해서 볼 때, 晏殊와 歐陽修의 詞風은 아주 유사하며, 두 사람 모두 「娛賓遣興」(친구들과 즐기며 흥을 돋움)<sup>4)</sup>하고 문장이 華美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晚唐·五代之의 艷麗하고 溫婉한 詞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二. 教坊新曲의 流行

小令詞는 北宋 初期에 이미 최고의 境界로 발전했지만, 일반 백성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대중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도 향락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여 대중적인 새로운 음악이 필요하게 되어, 教坊에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새로운 곡을 만들게 되고, 里巷間의 통속적인 歌詞도 만들어져 慢詞 발전의 大好機가 되었다. 이러한 慢詞 발전은 시대적 추세이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발전하고 慢詞 대유

4) 見 陳世修, 陽春集序, 轉引自 龍沐勳, 兩宋詞風轉變論, p3, 詞學季刊 第二卷 第一號.

행의 풍조가 일어나, 宋詞가 令詞보다 慢詞가 중심이 된 데에는 柳永의 공로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柳永은 形體上으로 長篇의 慢詞를 많이 만들었으며, 作風上으로는 晏殊·歐陽修의 清婉함을 탈피하고 直敝의 수법으로 情志와 景物을 묘사했으며, 내용상으로는 도시의 繁華하고 享樂的인 생활과 남녀의 애정과 이별의 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그는 창작을 할 때에 왕왕 市井俚語를 직접 사용하고 도시의 形形色色을 대담하게 묘사했다. 이제 柳永의 詞作을 예로 들어 보자.

雨霖鈴

소나기 막 그친 황혼 무렵,  
장정 앞엔 가을 매미 처량하게 울고 있네.  
성문 밖 송별의 잔치에 마음 어지럽고,  
아쉬움 남아 차마 못 떠나는데 배 떠나려 하네.  
두손 마주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 보나,  
목이 메어 끝내 말을 못하네.  
천리길 안개 속에 아득히 멀리 떠나는 그대.  
광활한 남쪽 하늘엔 저녁노을만 깊어가네.

寒蟬衰切。  
驟雨初歇。  
都門帳飲無緒，  
方留戀處，蘭舟催發。  
執手相看淚眼，  
竟無語凝噎。  
念去去·千里煙波，  
暮靄沈沈楚天闊。

자고로 다정한 사람은 이별을 슬퍼하는데.  
하물며 쓸쓸한 가을철에야.  
오늘밤 술 깨면 어디로 가나?  
효풍에 기운 달 저무는 곳이겠지.  
호시절 좋은 풍경 무슨 소용이라.

多情自古傷離別，  
更那堪·冷落清秋節。  
今宵酒醒何處？  
楊柳岸·曉風殘月。  
此去經年，應是良辰，  
好景虛設。  
便縱有·千種風情，  
更與何人說？

천가지 풍정이 있다고 한들,  
더불어 그 누구와 벗 하리오?

定風波

봄이 온 뒤로,  
붉은 꽃 푸른 잎도 슬퍼 보이고,  
모든 일이 그저 그렇네.  
햇빛 꽃가지를 비추고,  
피꼬리 버들가지 사이를 누비건만,  
그녀는 아직도 잠자리에 누운 채,  
부시시한 얼굴로 기름때 낀 머리칼 늘어 뜨리고,  
온종일 늘어지게 빗단장만 하는데,

自春來，  
慘綠愁紅，  
芳心是事可。  
日上花稍，  
鶯穿柳帶，  
猶壓香衾臥。  
暖酥消，膩雲羅，  
終日厭厭倦梳裹。

박정한 사람 한 번 가고 소식 한장 없으니,  
원망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無那! 恨薄情一去,  
音書無箇.

진즉 그리할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말 안장을 매어 놓을걸,  
서방 창가에서 지필만 가지고서,  
시사나 가르치게 잡아 둘 것을,  
진중일 못 피하게 붙어 다니며,  
한가할 때에는 바늘과 실 손에 쥐고서,  
그이 곁에 앉아,  
우리의 청춘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을.

早知恁般麼,  
悔當初·不把雕鞍鎖,  
向鸞窓, 只與鸞箋象管,  
拘束教吟課,  
鎖相隨, 莫拋躲,  
針線間拈伴伊坐,  
和我,  
免使年少, 光陰虛過.

〈雨霖鈴〉詞는 쓸쓸한 가을 경치를 묘사함으로써 情人과 차마 헤어지기 싫은 이별의 정을 표출해 냈으며, 겹하여 방황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먼저 實을 묘사하고 후에 虛를 묘사하는 수법으로 쓰여졌다. 實部分은 처음부터 “竟無語癡”句까지인데, 長亭 주변의 쓸쓸한 가을 경치와 離別宴의 정경이 쓰여졌으며, 虛部分은 “念去去”句부터 끝까지인데, 세부분으로 나누어 이별할 당시와 그날 저녁 그리고 次日 이후 「經年」의 情景를 순서대로 묘사했다. 특별히 중간에 “多情自古傷離別, 更那堪·冷落清秋節”句를 삼입하여 主旨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詞全體의 의미를 표출해 냈다.

〈定風波〉詞는 閨中艷情을 묘사한 작품인데, 前段은 情人이 薄情하게 떠나간(「薄情一去」) 뒤에 佳人의 슬퍼하면서 수척해지고 온종일 게으름 피우는 상태를 묘사했으며, 後段은 애당초 말 안장을 붙들어 매지 못하여(「當初不把雕鞍鎖」) 청춘을 헛되이 보내게 된(「年少光陰虛過」) 後悔 심리를 묘사했다. 用語가 通俗의이고 平易하며 묘사가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어서 以前文人들의 雅詞創作의 常軌를 벗어나 詞創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柳永의 詞가 「以俗爲病」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의 口味에 딱 맞아 「우물이 있는 곳에 柳永의 詞가 있다」<sup>5)</sup>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게 慢詞가 성행하게 된 것은 柳永의 功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慢詞는 사회의 보편적 수요와 영합하고 편폭이 긴 장편이며 변화의 특색이 있어,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해 당시 혹은

5) 葉夢得, 避暑錄話云: 「凡有井水處, 即能歌柳詞」, 見 詞林紀事 卷四, p. 104, 木鐸出版社.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三. 傳統觀念의 打破

北宋 初期의 詞는 晏殊·歐陽修·柳永 혹은 기타 문인 누구를 막론하고, 또 雅詞·俗詞 或은 小詞·慢詞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士大夫 혹은 小市民의 어떤 생활상을 반영했든지 간에, 「詞爲艷科」라는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男女相思·別離의 情이나 客愁의 情, 季節에 따른 感興, 혹은 宴席上의 酒興 등에 국한되었고, 風格上으로도 柔靡綺艷한 풍격 일변도였으며, 例外는 아주 극소수였다.

柳永이 비록 慢詞라는 詞體를 발전시켜 詞의 형식과 기교가 다양화되었으나, 그 內容과 意境에 있어서는 역시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詞의 意境을 넓혀 주고 내용의 변화를 이룩하여 詞風에 일대 변혁을 가져 온 사람이 바로 「以詩爲詞」의 방법으로 詞를 창작한 蘇軾이다.

蘇軾은 狹小한 전통 관념을 타파하여 音律의 속박을 풀고, 내용을 보다 중시하여, 詞라는 형식을 빌어 人生觀·懷古·敘事·功名·哲理 등을 노래해, 劉熙載는 「표현하지 못할 뜻이 없고, 언급하지 못할 일이 없다」<sup>6)</sup> 라고 했으며, 風格면에 있어서도 종래의 婉約한 詞風에서 벗어나 豪放한 詞風을 창시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蘇軾은 종래의 詞人들이 歌妓나 樂工을 위해, 혹은 酒席上의 遊戲와 餘興으로 지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詞作에 담음으로써 詞의 境界를 한층 提高했으며, 詞의 지위를 詩와 대등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이제 蘇軾의 詞 가운데 몇 작품을 예로 들어 본다.

#### 念 奴 嬌

—— 赤壁回顧

장강은 도도히 동으로 흐르고, 큰 물결로 천고의 풍유인물 다 쓸어버렸네. 성벽 서쪽을 사람들은 말한다네. 삼국시대 周瑜가 싸우던 적벽이라고.	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 人道是三國周郎赤壁.
---	--

6) 劉熙載, 詞概云: 「東坡詞, 頗似老杜詩以其無意不可入, 無事不可言.」,  
見 唐圭璋, 詞話叢編 卷六, p3771, 廣文書局.

어지러운 바위는 구름을 뚫고,  
성난 파도는 해안을 치며,  
눈같이 흰 물결을 말아 올리네.  
강산은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한때엔 얼마나 많은 호걸들이 있었던고.

亂石崩雲，  
驚濤裂岸，  
捲起千堆雪。  
江山如畫，  
一時多少豪傑。

주유의 그 당시를 아득히 생각하니,  
소교 갓 시집을 때, 영웅자태 빛냈었지.  
깃부채 흔들며 윤건을 쓰고 담소하는 사이,  
돛대와 노(魏의 水軍)

遙想公瑾當年，  
小喬初嫁了，雄姿英發，  
羽扇綸巾，談笑間

재되어 날고 연기되어 사라졌지.  
고국의 무한한 강산 생각하면,  
다정한 사람들 나를 비웃겠지,  
일찍이도 젊은 사람 백발됐다고.  
인생은 꿈 같으니,  
한잔 술 강속의 달에 부어 甯喪한 들  
어떠하리.

檣櫓灰飛煙滅。  
故國神遊，  
多情應笑我，  
早生華髮。  
人生如夢，  
一尊還酹江月。

### 定 風 波

—3월 7일 사호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우구가 먼저 가고 없어 동행이 모두 낭패할 때 나는 홀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마침내 비가 개서 이 글을 지었다.—

(三月七日，沙湖道中遇雨，雨具先去，同行皆狼狽，余獨不覺，已而遂晴，故作此。)

숲속가르며 잎때리는 빗방울소리 개의치 마라.  
노래 부르며 산보해도 괜찮지 않은가.  
죽장에 짚신 신이니 말탄 것보다 경쾌한데,  
그 무엇이 두려우랴.  
자욱한 연우, 최의 걸치고 한 평생 살아가야지.

莫聽穿林打葉聲，  
何妨吟嘯且徐行。  
竹杖芒鞋輕勝馬，  
誰怕？  
一蓑煙雨任平生。

싸늘한 봄바람에 술기운 가시고  
한기 느낄 때,  
뒷밖에 산머리 낙조가 나를 반기어,  
출근 적막했던 곳 뒤 돌아보네.  
돌아가자!  
말지는 않으나 비바람 없으니.

料峭春風吹酒醒，  
微冷，  
山頭斜照却相迎。  
回首向來蕭瑟處，  
歸去，  
也無風雨也無晴。

### 江 城 子

—乙卯正月二十日夜記夢



십년 동안 생과 사의 단절이 아득한데,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네.  
 천리고분이기에,  
 가슴 속의 비애 전할 길 없네.  
 설령 만나다 해도 못 알아보리니,  
 먼지만 얼굴에 가득하고,  
 귀밑머리 서리처럼 세어버렸네.

十年生死兩茫茫，  
 不思量，自難忘。  
 千里孤墳，  
 無處話淒涼。  
 縱使相逢應不識，  
 塵滿面，  
 鬢如霜。

간밤 깊은 꿈 속에 갑자기 고향엘 가니,  
 작은 창가에서 머리 빗고 화장하며,  
 말없이 바라보고,  
 천 가닥 눈물 흘리네.  
 생각하니 해마다 애끓는 곳은,  
 달 밝은 밤, 작은 소나무 언덕이더라.

夜來幽夢忽還鄉，  
 小軒窗，正梳粧。  
 相顧無言，  
 惟有淚千行。  
 料得年年腸斷處，  
 明月夜，短松岡。

蘇軾은 성품이 강직하며 책임감이 있고 直言을 서슴치 않아 주위 사람의 疾視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연유로 官運이 평탄치 않고 자주 貶職되어서 자신이 품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종종 懷古感遇의 작품을 지어 자신의 감개를 나타냈는데, 위에 인용한 〈念奴嬌〉詞가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蘇軾이 黃州에 있을 때, 黃州 부근의 赤壁에서 周瑜가 赤壁大戰에서 曹操의 군대를 대파한 것을 회고하며 지은 詞이다. 前段에는 그림같은 赤壁의 景觀을 묘사하면서, 三國 當時의 歷史的 事實을 투영하여 古今 興亡盛衰의 感慨를 표출해 냈고, 後段에는 周瑜의 영웅적 姿態와 功業을 묘사하면서 貶職되어 功業을 이루지 못하고 老衰한 자신의 형상을 대비시켜 자신의 感慨를 나타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主宰할 수 없음을 깨닫고 達觀의 심정으로 現實과 理想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蘇軾의 詞에는 이와 같은 雄壯豪放한 작품 이외에 전원생활의 細節을 묘사한 작품도 있는데, 이는 黃州 貶職 이후에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田父野老들과 같이 지낼 시간이 많아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두번째 인용한 〈定風波〉詞가 이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詞題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沙湖가는 도중에 비를 만난 조그만 사건을 쓴 것이지만 작자의 廣達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 「誰怕? 一蓑煙雨任平生」, 「歸去, 也無風雨也無情」句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떠한 좌절도 견딜 수 있다는 생활태도와 미래에 대해 得失을 따지지 않고 단지 평안함을 구하는 超然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상 두편의 雄壯豪放하고 超然廣達한 작품을 봤는데, 蘇軾詞에는 이외에도 離情別緒나 閑情과 感傷을 섬세하게 그려낸 婉約한 작품도 상당수 있다. 다만 豪放廣達한 詞作에 가려 있어, 晁補之는 〈短於情〉<sup>7)</sup>이라고 비평했지만, 실제 蘇軾의 婉約詞는 그 성취에 있어 「周邦彥이나 姜夔도 따를 수 없다.」<sup>8)</sup>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면이 있다. 이는 蘇軾이 前代의 婉約詞人과는 다르게 艷情을 묘사하지 않고, 詞 본연의 婉約한 情調를 살려 여인들의 文才나 才能, 妻妾에 대한 그리움, 문인들 간의 離別之感을 그려냈으며,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감회나 진실하고 순수한 애정을 담고 있어서 婉約詞에 새로운 측면을 부가하고 婉約詞의 수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세번째 인용한 〈江城子〉詞가 바로 그러한 詞作인데, 이 작품은 작자가 喪妻 10년 후에 꿈 속에서 亡妻를 보고 지은 것이다. 前段에는 死別한지 10년이 되는 부인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과 자신이 겪어온 처량했던 시기를 묘사했으며, 後段에는 꿈 속에서 亡妻와 만나는 장면과 꿈 깬 후의 애틁한 마음을 그려냈는데, 진실로 悽愴哀婉하고 작자의 부인에 대한 영원하고 애뜻한 정감을 나타냈다.

이상 인용한 몇 작품을 보면 蘇軾詞가 詞의 범위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詞의 境界도 提高했으며, 종래의 전통인습과 엄격한 음율의 속박을 타파하여 詞體에 신경지를 개척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蘇軾詞의 위대한 성취이며 후대 詞人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四. 形式·格律의 重視

詞는 蘇軾에 이르러 새로운 意境이 개척되고 내용도 풍부해져 그 범위가 廣大됐지만, 音律에 있어서는 역시 조화를 이루지 못해 詞의 本色이 아니라는 비평도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詞壇에서는 格律의 조화와 詞語의 典雅함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소위 말하는 「語工而入律」<sup>9)</sup>으로써 作詞原則을 삼은 문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周邦彥·萬俟詠·晁端禮·田爲 등이

7) 詞苑萃編云:「眉山公之詞, 短於情.」, 見 詞話叢編 卷三, p2125, 廣文書局.

8) 陳廷焯, 白雨齋詞話 云:「東坡詞寓意高遠, 運筆空靈, 措語忠厚, 其獨到處, 美成, 白石亦不能到.」, 見 詞話叢編 卷六, p3807, 廣文書局.

9) 見 葉夢得, 避暑錄話 卷下 p.2, 筆記小說大觀 第三篇 冊三, p1612, 新興書局.

바로 그들이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周邦彦이다.

周邦彦은, 格律을 중시하고 일반인의 기호에 영합하는 柳永의 詞風과 격률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용에 충실하려는 蘇軾의 詞風을 종합, 검비하였기 때문에 北宋詞의 「集大成者」<sup>10)</sup>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의 詞는 音律과 조화 되고, 詞의 結構·作法이 모두 法度에 맞으며, 辭藻의 雕琢에 精工하여, 沈義父는 《樂府指迷》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릇 작사를 하는 데는 清真(周邦彦)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清真은 音律을 잘 알고, 또 俗語가 조금도 없으며, 詞語와 詞意를 운용하는 데 모두 법도가 있다. 왕왕 唐宋 諸賢의 詩句를 인용해 썼으나, 經·史 中에서 生硬한 글자는 쓰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까닭이다.<sup>11)</sup>

이제 周邦彦의 詞作 몇 수를 예로 들어 본다.

瑞 龍 吟

초대로엔,  
분빛 퇴색한 매화가지와,  
갓 피기 시작한 복숭아나무 아직 볼 수 있고,  
골목길 집들은 조용한데,  
둥지 틀고 갔던 제비,  
옛집으로 돌아왔네.

章臺路,  
還見褪粉梅梢,  
試花桃樹.  
愔愔坊陌人家,  
定巢燕子,  
歸來舊處.

속연하게 청신 집중하고 오랫동안 서서,  
그녀의 귀엽고 아담한 체구를 그리는데,  
갑자기 문틈으로 살짝 보이네.  
새벽같이 黃粉으로 연하게 화장을 하고선,  
옷 소매를 치켜올려 바람 막으며,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야기하네.

黯澹佇,  
因念箇人癡小,  
乍窺門戶.  
侵晨淺約宮黃  
障風映袖,  
盈盈笑語.

전에 왔던 劉郎이 다시 찾아와,  
동네방네 그녀를 수소문하니,

前度劉郎重到,  
訪隣尋里,

10) 周濟, 宋四家詞選目錄序論, 詞話叢編, p.1630, 廣文書局.

11) 樂府指迷 云:「凡作詞當以清真爲主, 蓋清真最爲知音, 且無一點市井氣, 下字運意, 皆有法度, 往往自唐宋諸賢詩句中來, 而不用經史中生硬字面, 此所以爲冠絕也。」, 見 詞話叢編, p.229-230, 廣文書局.

전에 같이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들 중에,  
오직 秋娘만이 옛 명성이 그대로 있네.  
故.

시를 쓰려 종이와 붓을 드니,  
아직도 燕臺詩가 기억이 나네.  
그 누구와 짝하여  
名園 露天에서 술 마시고, 동성에서 산책할꼬?  
지난 추억들 외로운 기러기와 날아가 버리니,  
봄 경치 찾아 구경해도

온통 이별의 슬픔뿐이네.  
큰 길가의 버드나무는  
황금실처럼 드리워져 있고,  
느지막히 말을 타고 돌아오니,  
연못가의에 훔날리는 빗줄기 보드랍고,  
애끓는 뜰 안에는 버들꽃만 훔날리네.

同時歌舞,  
惟有舊家秋娘, 聲價如

吟箋賦筆,  
猶記燕臺句.  
知誰伴,  
名園露飲, 東城閑步?  
事與孤鴻去,

探春盡是, 傷離意緒.

官柳低金縷,  
歸騎晚,  
纖纖池塘飛雨,  
斷腸院落, 一簾風絮.

### 六 醜

—— 장미꽃 진 뒤 지음  
(薔薇謝後作)

홀웃 차림으로 술을 마시니,  
헛되이 세월 보낸 나그네 생활이 한스럽구나.  
봄이 좀더 머물기를 원해보지만,  
봄은 나는 새처럼 종적없이 가 버렸네.  
물어보자, 네 꽃은 어디 있느냐?

지난 밤 비바람이 초궁미녀(락화) 장사  
지냈고,

비너(화) 떨어진 곳에는 향기만 남았네.  
복숭아나무 밑 길에 어지러이 널려있고,  
버드나무 길엔 이리저리 가볍게 훔날리고  
있네.

다정한 사람들은 누굴 위해 애석해 하나.  
단지 중매장이 벌과 나비가,  
이따금 창살을 두드린다네. (애석해 하네.)

적막한 동원엔 록음이 점점 짙어 가는데,  
꽃떨기 주위 조용히 맴돌며 한숨만 짓네.  
긴 가지는 괜히 가는 나그네  
옷깃 끌어 당기며,  
지극한 이별의 슬픔 담고서 말하고 있네.  
지고 남은 작은 꽃 마지못해

正單衣試酒,  
悵客裏, 光陰虛擲.  
願春暫留,  
春歸如過翼, 一去無迹.  
爲問花何在?  
夜來風雨, 葬楚宮傾國.

釵細塵處遺香澤,  
亂點桃蹊,  
輕颺柳陌.

多情爲誰追惜?  
但蜂媒蝶使,  
時叩窗櫺.

東園岑寂, 漸蒙籠暗碧.  
靜繞珍叢底, 成歎息.  
長條故惹行客,  
似牽衣待話,  
別離無極.  
殘莫小,

머리에 꽃기는 했으나,  
금 비너만 못하고 파르르 떨며  
몸쪽으로 치우치네.  
떠내려 가더라도,  
조수 따라 표류하지 마라.  
붉은 꽃잎 위에 애끓는 사랑의  
식기가 띄어 있을지 모르는데.  
(대해로 가서 표류하면)사람들이  
어찌 볼 수 있겠는가?

強簪巾幘.  
終不似·一朵釵頭顚髻,  
向人欹側.  
漂流處,  
莫趁潮汐.  
恐斷紅  
尙有相思字,  
何由見得?

위에 인용된 〈瑞龍吟〉詞는 舊處에 다시 돌아와 느낀 傷離의 情을 그린 感懷詞이며 三疊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疊과 第二疊은 일반 詞의 前段에 속하고 第三疊은 後段에 속한다. 제일疊에서는 「歸來舊處」後에 본 것들을 서술했는데, 「草臺路」句는 地點을 나타내고 있으며 「還見」以下 二句는 때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二疊에서는 옛날 當時의 일을 追念하고 있는데, 「黯巖壑」句는 그 思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第三疊은 이 作品의 總括部分이며, 詞全體의 핵심 부분이다. 「前度劉郎重到」, 以下 五句는 第一疊과 互應해서 옛날 劉郎이 舊處에 돌아왔지만 情人을 찾을 수 없어 느끼는 悲哀와 失意가 作者自身과 같음을 直·間接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으며, 「猶記燕臺句」句와 「事與孤鴻去」句는 李商隱과 洛中里娘(柳枝)、杜牧과 張好好的 故事를 借用하여 자신의 韻事로 썼다. 「探春盡是, 傷離意緒」句는 이 작품의 主旨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 五句는 「歸騎」하면서 본 늦은 봄 적막한 황혼 무렵의 傷離之情을 烘托해냈다.

두번째 〈六醜〉詞는 落花를 애석해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움을 의탁한 詠物詞이다. 前段 첫머리의 「單衣」는 이미 날씨가 溫暖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悵客裏光陰虛擲」句는 本 作品을 만들게된 작자의 主旨가 담겨있다. 이어서 장미꽃을 美人에 비유한 擬人法을 사용하여 봄이 「一去無迹」한 상황을 묘사했으며, 마지막으로 벌과 나비는 「時叩窓櫺」하며 애석해 하는데 사람은 아무도 애석해하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後段 첫 二句는 落花以後 即 봄이 간 뒤의 정경을 묘사했으며, 그 뒤 九句節을 前段 「多情爲誰追惜」句와 호응하여 觸景傷情함을 그려냈다. 마지막 句는 落花를 보고 紅葉題詩의 故事를 연상하여 떨어진 붉은 장미꽃에 대한 애뜻한 정을 나타냈다.

以上的 예로 볼때 周邦彥의 詞는 字句의 鍊磨·音調의 調和 方面이나 構

成의 엄밀함과 옛 詩句와의 融化 方面에 있어 모두 뛰어난 솜씨가 발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慢詞는 周邦彦에 이르러서, 柳永詞의 低俗함이나 蘇軾詞의 音律不調和 결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시 문인과 지식인들이 즐겼을 뿐만 아니라 樂官·歌妓들도 부르기를 즐겨해서 그의 詞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었다.

### 三. 結 言

以上 本文을 종합해 볼 때 詞風의 변화는 시대와 환경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첫 단계는, 宋初에 나라가 비로소 안정되고 詞體도 이루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晏殊·歐陽修 등 詞人들은 晚唐·五代的 詞風을 답습해서 「娛賓遣興」의 詞作들을 만들었으며,

둘째 단계에서는, 晏殊·歐陽修 詞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귀족들의 娛樂文學性格이 짙어 社會大衆의 需要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篇幅도 길고 내용도 通俗인 柳永의 慢詞와 俚詞가 출현하게 되어 일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성행하게 된다.

셋째 단계에서는, 柳永詞의 風格이 너무 卑俗하여 詩人들의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蘇軾이 以前의 폐단을 없애고 詩人의 豪放하고 漂逸한 필치로 내용이 풍부한 歌詞를 만들어 詞의 意境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詞의 地位를 提高시켜 독특한 風格을 創始했다.

네째 단계에서는, 蘇軾의 詞가 詞의 風格을 改進하고 내용이 다양해졌지만 音律에 맞지 않아 詞 본래의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文人들이 많았는데 이에 周邦彦이 「語工而入律」로써 詞壇을 이끌며 너무 卑俗하다는 柳永의 缺陷과 音律에 맞지 않는 蘇軾의 결함을 없애 雅正한 品格을 유지하며 格律에도 맞는 詞를 만들어냈다.

결국 北宋 初期의 令詞 以後에 柳永이 개발한 慢詞는 蘇軾을 거쳐 周邦彦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物窮則變」이 北宋 詞風 變化의 단계에 存在함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 《唐宋詞史》，楊海明 著，江蘇古籍出版社  
 《中國詩詞演進史》，稽哲 著，莊嚴出版社  
 《唐宋詞名家論集》，葉嘉瑩 著，國文天地雜誌社  
 《唐宋史通論》，吳熊和 著，浙江古籍出版社  
 《宋詞通論》，薛礪若 著，開明書局  
 《宋詞研究》，胡雲翼 著，大行出版社  
 《唐宋詞鑑賞集成》，唐圭璋 主編，中華書局  
 《宋詞賞析》，仁愛書局  
 《宋詞三百首》，江中 註譯，三民書局  
 《唐宋詞名作析評》，陳弘治 著，文津出版社  
 《唐宋詞選注》，唐圭璋 等注，北京出版社  
 《中國文學概論》，金學圭 著，新雅社  
 《詞林紀事》，木鐸出版社  
 《筆記小說大觀》，新興書局  
 《詞話叢編》，唐圭璋 編，廣文書局  
 《詞學季刊》，第二卷 第一號